



보현산댐 출렁다리 조감도

영천 보현산댐에 국내 두 번째 규모(530m) 출렁다리 만든다

총사업비 117억원 들여 주변에 탐방로, 주차장, 수변광장 조성
 내년 12월 준공...보현산 권역과 함께 영천관광 랜드마크 만든다

영천 보현산댐에 국내 두 번째 규모 530m 인도교(출렁다리)가 건설된다. 지금까지 국내 최대 출렁다리는 충남 논산 탐정호에 설치된 길이 570m, 양쪽 진입 구간까지 합치면 최대 길이 600m다.

영천시는 지난 13일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북면 보현산댐 전망대에서 이같은 착공식(실제 공사 착공 지난 달 26일) 행사를 갖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총사업비 117억원(국·도비 50억, 시비 67억)을 들여 '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주탑 현수교 방식으로 건설된다. 총 연장 530m로 이는 국내 출렁다리 중 두 번째 규모다.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는 350m다.

또 영천시는 출렁다리 주변에 50억원(국·도비 30억, 시비 20억)을 들

여 보현산댐 둘레길에 탐방로(연장 2.5km, 폭 2.0m)를 조성하고, 58억원(국·도비 34억, 시비 24억)을 투입한 주차장(A=8,000㎡, 주차 면수 176대), 수변광장(A=2,900㎡) 등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이날 착공한 인도교 설치공사를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2년 연말에

는 보현산댐 쉼터, 인도교(출렁다리) 및 탐방로, 보현산댐 하류공원, 보현산 녹색체험터, 오리장림, 천문과학관, 별빛테마마을, 보현산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함께 영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영천관광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장지수 기자

경북,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

도내 집단 식중독 8건 중 6건(75.0%) 노로바이러스 감염

어린이집·초등학교 급증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최근 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총 8건의 집단 식중독 중 6건(75.0%)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식중독 7건 중 1건(14.3%)이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올해 도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요 발생지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군부대 등 집단 급식시설이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집단 발병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 또는 감염된 환자로부터 2차 감염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감염력이 강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설사 등 증상이 있고 그 외 복통·오한·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주 가량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관련기사 4면·11면 사실>

장지수 기자

본지 필진에 박순교 교수 합류

경북대 인문학술원 객원 연구원 박순교 교수가 이번호부터 본지 오피니언 필진에 합류했다.(사진)

박순교(56) 학술연구원 교수는 역사의 행간에서 명멸해 간 인물들의 감춰진 삶과 운명을 부조하여 복원하는 데 연구의 중추를 이룬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거나, 지탄받는 대상의 재조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천과의 별다른 연고가 없던 박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에 소속돼 정씨 문중의 도움을 받아 '영



천성수복'에 관심을 갖고 호수 정세아 선생의 삶과 사상을 탐구하면서 본지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 교수인 박순교 교수는 김춘추, 이용상, 경애왕, 고종후, 미추왕, 정세아 등에 관한 다수의 책을 집필하고 지역 영천의 인물을 연구중이다.

다음 신문발행 6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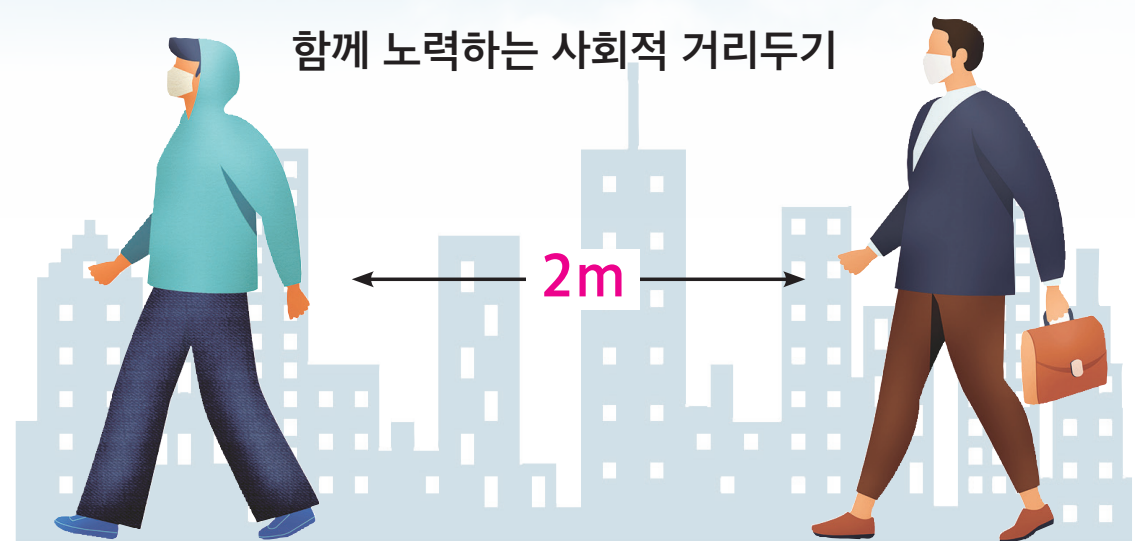
영천신문 코로나19 극복캠페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 코로나 조기 종식시키자

코로나 예방 원칙

- 마스크 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자가격리 수칙지키기
- 기침 예절 지키기

함께 노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 거리를 띄워요!
- 아디서나 써줘요!
- 비누로 씻어요!
- 옷소매로 막아요!
- 밀폐 밀집 밀접 피해요!
- 감염병 공금할 땐 전화해요!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 한그릇만족 ·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신도회 · 영천시경우회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부정채용 의혹... 시험 질문서 사전 유출

응시자 7명 중 질문서 받은 4명 모두 합격... 부정채용 확인되면...합격자 불합격처리 등 재시험 후속조치

영천시가 공무직 부정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만열)가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과정에서 시험 하루 전 날 면접질문서가 유출됐다. 응시자 7명 중 사전에 질문서를 전달받은 4명은 모두 합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응시자 7명은 모두 관련직 영천시 기간제 근로자다.

앞서 영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달 7일 공고를 거쳐 같은 달 21일 4명을 채용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리·정비 공무직 공무원 임용시험(면접)을 실시했다. 심사관은 인근도시 5곳의 농업기계담당관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험 하루 전날인 지난 달 20일 합격자 4명에게 시험질문서가 사전 유출됐고, 응시자 7명 중 질문서를 받은 4명만 합격처리 됐다. 전달 받지 못한 3명은 불합격처리 됐다.

자신이 응시자 중 한 명이라고 밝힌 본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농기

계임대사업소 공무직 공무원 한 명이 자신의 친동생이 포함된 응시자 4명에게 면접질문서를 전달했다"며 "합격자 중 한 명이 자신에게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유출된 질문서는 각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적는 심사기준 점수표로 응시자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또 각 문항 별 20점, 5개 항목 8개 질문으로 구분돼 있으며, 총평점 100점을 기준으로 면접관의 이름을 기재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해당부서 출력물로 파악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농업기술센터는 "유출된 면접질문서는 면접관을 위한 예시 질문서일 뿐 7명의 응시자를 1대1로 만나 조사한 결과, 21일 실제 면접에선 질문지에 없는 질문이 95%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질문서 유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기존 공무직 한 명이 4월16일 경 채용준비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공무원(

지도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작성중인 컴퓨터를 촬영해 A씨에게 그 휴대폰을 보여주고 A씨가 기존 공무직의 휴대폰을 촬영해 간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센터는 합격자 등록을 일시 보류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 파악이 어려워질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센터는 면접질문서 유출이 사실일 경우 조사 확대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함께 합격자 4명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고, 재시험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공무직 부정채용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하위직 한 공무원은 "요즘 같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바늘구멍인 세상에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정채용 논란이 발생한다면 정의와 공정을 가장한 범죄집단과 뭐가 다르냐"며 "사법 당국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

시, 전달-유포 경위 자체조사 한계 관련자 등 10여명 조사 불가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정비 공무직 공무원 임용시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결국 지난 7일 영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보자·관련자 등 엇갈린 주장으로 시험지(질문서) 사전 유출 전달 및 유포 경위 등을 밝히는데 자체 조사에 한계 때문이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수리·정비 공무직 시험 하루 전날 예시 질문서를 사전 유출한 공무직 근로자와 이를 전달받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지난 7일 영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16일 경 채용준비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담당 공무원(지도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근무중인 공무직 한 명이 작성중인 컴퓨터를 촬영해

A씨(불합격)에게 그 휴대폰을 보여주고 A씨가 공무직의 휴대폰을 촬영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천시의 이같은 수사의뢰는 사태 파악이 어렵자 결국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에는 합격자 4명과 불합격자 3명, 관련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문서를 직접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제3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임용 취소 및 재시험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공무직 4명 부정채용 의혹 외에 하루 전날인 20일에도 또 다른 계약직 4명의 시험도 치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지수 기자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과장(A씨) 구속 영장 '발부'

법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유 같은 의혹으로 (압수수색)수사 중인 영천시의회 B의원과 A씨 연관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경북경찰청 특별수사대로부터 청구된 구속영장을 지난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50

분쯤 진행됐으며, 3시간 30분여 심사 끝에 법원은 오후 6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영천중학교~북문통사거리간 도로개설(확장)과 관련해 2018년 7월 창구동 14X-X번지 350여㎡를 부인 명의로 3억3천만원에 사들여 20%인 70여㎡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영천시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4일 이같은 혐의로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두 곳을 압수수색해 그동안 A씨가 토목(도시계획)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시(도로)계획 예정지역 주변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해왔다.

한편,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7일에도 영천시의회 B의원을 압수수색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계속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기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A씨와 B의원은 중간에 도로하나를 두고 같은 사업·같은 장소의 땅을 매입해 일부만 편입되면서 영천시로 부터 수 억원대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경찰은 A씨와 B씨의 연관 관계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디에스글로벌(주), 투자양해각서

봉동 일원 약 4천 평에 135억원 투자, 만두생산 인력 30명 고용



영천시는 지난 6일 디에스글로벌(주)(대표 송영호)와 식품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디에스글로벌(주)는 영천시 봉동 일원 약 4천 평 부지에 135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역 쌀을 이용한 만두 생산으로 인력 30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송영호 대표는 올해 말 이곳에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만두를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최기문 시장, 어린이집 방역예방수칙 준수 현장점검 날 지역 한 어린이집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사고 발생

최기문 영천시장이 지역 어린이집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점검을 하는 날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근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고 영천시가 14일 밝혔다.

영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9대 취약시설(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방문판매 및 대형마트, 유흥시설, 식당·카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날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족행복과와 영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최기문 시장과 함께 보육교직원 및



아동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을 점검했다고 영천시가 전했다.

또 영천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시장이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점검에 나선 이날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14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영천시보건소와 영천시는 감염병발생 초기 대응에 실패해 어린이발 식중독 감염자 수가 확산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영천사랑카드, 5/20~25일까지 서비스 일시 중단

한국조폐공사 플랫폼 확장·이전

영천시사랑카드 사용이 오는 20일 0시부터 25일 6시까지 5일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영천시는 한국조폐공사 지역화폐 플랫폼 확장·이전 구축에 따른 조치로 이같이 전하고 중단되는 것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류형 영천사랑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불가 내용은 △영천사랑카드 충전, 결제(취소 포함) 및 환불 불가 △영천사랑카드(NH카드) 체크카드 기능 이용 불가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이용하는 전체 서비스 중단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앱·웹 서비스 접속 불가 등이다.

주호영 의원, 영천 방문...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인사' 단결 강조

당대표 '영남권배재론' 일축... "더 단합해 정권 되찾는데 힘 보태야"
"당대표 되면, 대선 승리 위해 반드시 야권단일화 필요" 천명

국민의힘 당 대표출마를 앞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지난 8일 오후 영천을 방문해 당원 결집에 나섰다. 주 의원(전 원내대표)은 지난 10일 오후 2시에 당대표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영천지역당협(위원장 이만희 의원) 사무실에서 50여명의 지역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강조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저(주호영)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내년 대선승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교두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포항남·울릉 당협을 거쳐 오후 3시에 영천당협 사무실을 찾아 이같이 밝힌 주 전 원내대표는 "지금의 나라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민주당에 넘겨준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무

엇보다 당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당내 선·후배들의 당을 위한 헌신 요청을 받아들일기로 했다."고 밝히고 출마 배경과 함께 대선승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고개를 드는 '당권 영남배재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일축했다. "울산은 경남·부산권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경북권과 더욱 단결해 당내 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권 탈환이 목적이다"며 '영남권배재론'을 강하게 일축했다.

앞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당 대표 선출에서 최대 기반인 영남 출신 후보를 배제하지는 주장은 민주당에서 호남 후보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며



당권에 대한 '영남권배재론'을 비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오는 대선에서는 반드시 야권 단일화는 필수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야권단일

화 최일선에 설것을 천명했다.

주 의원은 "대선에서 민주당에 지면 10년 내에 나라는 망한다. 이 정권이 들어 나라 빛이 수 백조 늘었다. 정치는 못하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빛내서 국민들에게 퍼주면서 표를 사는 형국이다. 이 빛은 우리 후대가 다 갚아야 하는 짐이다."면서 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담에 25톤 화물차량 25m 아래로 추락

담 수위 낮아 물속에 안빠져, 운전자 외 인명피해 없어

담 주변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량이 상수도보호구역인 담 25여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10일 낮 12쯤 경북 영천시 자양면 영천담(자양담) 옆 도로를 지나던 25톤 대형 화물차량이 자양면에



서 시내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왼쪽 방호벽과 가로수 및 철재방을 차례로 부수고 15여미터 진행한 후 25여미터 담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담 수위가 낮아 차량은 물속으로 잠기지는 않았지만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또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 A씨(50)는 부상을 입었으나 차량에 적재된 화물이 없었으며, 가로수와 방호벽 및 철방 파손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나와 이날 오후 4시까지 도로 양방향으로 통제하고 4시 30분쯤 사고를 수습한 후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장지수 기자

새내기 소방공무원 8명 임용장 수여식

영천소방서, 119안전센터 배치

영천소방서(서장 김재훈)는 신규 소방공무원 8명의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은 경북소방학교 신입교육과정에서 12주간 소방 활동 교육과 훈련을 받

았으며, 앞으로 4주간 영천소방서에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화재, 구조, 구급, 행정업무 등 실무 적응훈련을 거친 후 일선 현장 119안전센터로 배치된다.

김재훈 서장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소방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은혜사 봉축요법요식 거행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19일 조계종 10교구본사 영천 은혜사(주지 덕관스님)를 비롯해 지역 80여 사찰에서 이날 일제히 봉축요법요식이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은혜사 법요식에는 조실 범터스님과 회주 돈명스님, 은혜사 사부대중, 천주교 대구대교구 원로사제 정홍규 신부, 하양무학로교회 조원경 목사 등이 함께했고, 지역 기관에서는 <사진 앞쪽 오른쪽부터>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중식 도교육감,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의원, 윤두현 의원이 나란히 합장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겼다. 이날 은혜사 주지 덕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남기셨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는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코로나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영원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일 뿐"이라고 전했다.



여성기업인협 영천지회, 나래공방 임현옥 대표 제6대 회장 취임

(사)경북여성기업인협회의 영천지회 제6대 회장에 나래공방 임현옥 대표가 선임돼 지난 17일 SD웨딩컨벤션에서 이·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에는 최기문 시장, 조영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각 기관단체장, 여성기업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현옥 신임 회장은 나래공방 대표로 전자과 차단 의류 연구개발 및 경쟁력 개발에 힘써오면서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2018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사)경북여성기업인협회의 영천지회는 2007년 4월 12일 창립해 현재

29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여성 CEO 아카데미 운영, 여성기업인 경영역량 강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역 여성기업들의 권익신장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2007년 이후 총 9회에 걸쳐 영천시장학회에 총 17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 A어린이집 14명 집단 식중독 증세...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영천시보건소 초기 대응 부실...가족 감염 확산 우려도

경북도가 지난 7일 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를 내린 가운데 영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영천시와 보건소가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오히려 증상자만 늘어났다"며 학부모 등의 원성도 높다.

지난 13일 영천시 A어린이집에서 원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며 B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잇따라 그 가족 1명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모두 4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나타냈다. 이 학부모는 입원 전날인 12일에도 유사 증세로 먼저 병원을 한 차례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어린이집은 14일 오전 영천시와 보건소에 신고 후 당일 하루 휴원했다.

하지만 영천시보건소가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과 학부모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소는 이날 3명의 가족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도 최초 발생한 가족 환자에 대한 분변검사와 역학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 역시 발생 환자 인원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며 쉬쉬하기에만 급급했다.

지역 한 의료진에 따르면 "통상 세균성장염이 의심되는 설사환자(가족단위)가 입원할 경우 분변, 혈액, 체온 등은 루틴체크(기본검사) 항목이다. 세균 확산을 대비해서도 보건소와 공조를 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와 보건소는 핵심 검사항목인 분변검사를 등한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검체 확인을 6건 했다"지만 초기 환자에

대한 분변채취검사 등은 누락했다.

A어린이집 학부모 등은 "영천시와 보건소는 발병 숙주인 최초 환자에 대해서는 음식, 발병 시기 및 원인 등은 문진조차 하지 않고, 원에 대한 보존식품, 음용수, 조리사 및 조리기구에만 집중 역학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발병 원인일 수 있는 숙주를 놓친 이같은 초기 대응 부실로 자칫 사회 또는 가족간 감염확산까지 우려된다"며 "영천시의 안일한 자세에 오히려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실제로 입원가족 2명에서 17일 또 1명이 추가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돼 가족간 감염이 늘어났다. 또 이들 가족 환자 중에는 초등학교생과 중학생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외부 확산까지 우려된다. 때문에 이들은 "무증상자에 대한 검체확인도 당분간 일정 기간 휴원도 고려해야 한

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보건소는 지역 일간지에 "원생 등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검사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영천시 보건소는 장염 판정 숫자보다 적은 6명의 검체만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는 사이 17일 현재 A어린이집에서는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로 현재 병원 입원(5명)과 치료 및 자가 보호자는 모두 13명~14명인 것으로 파악돼 영천시의 초기대응이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A어린이집 한 학부모는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인데도 영천시는 발생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4일 하루 휴원과 뒤늦게 환자 전체가 아닌 일부 검체 검사 등이 고작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영천시는 본지 'A어린이집이

발병 숙주인지 최초 발생 원생 가정 이 어린이집으로 전파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서 보관식 및 환자 검체 결과가 오늘 아니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 또는 감염된 환자로부터 토사물이나 분변 등 2차 감염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감염력이 강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된다.

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설사 등 증상이 동반되고 그 외 복통·오한·발열이 나타나며, 발생 후 48~72시간 동안 지속된다.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주 가량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배설물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11면 사설> 장지수 기자

영천 A,B여고발 코로나 확진 6명

해당 학년 200여명 전수조사 A학교 학생·교직원 전원 음성 B학교발 학부모 1명(86번) 추가

경북 영천에서 17일 하루만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와 보건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81~85번째 확진자다.

19일 영천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북 하양 소재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A여고 2학년생이 경산 거주 확진자와 접촉해 16일 영천시 보건소에서 검체 확인한 결과 17일 확진판정(#81번 확진자)을 받으면서 81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부모 2명 등 A여고 관련 모두 3명이 확진

됐다.

또 A여고 81번 확진자와 친구인 B여고 2학년 학생 1명도 이날 확진되면서 부모에게 전파되는 등 B여고 학생 1명과 학부모 2명 등 17일과 18일 모두 6명이 양성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영천시는 17일 하루 동안 두 곳의 여고 학생 2명과 학부모 3명 등 모두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18일 B여고 학부모 1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6명 늘어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A여고는 확진자가 포함된 2학년 1개반 2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2학년 및 교직원 145명이 PCR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됐다. 또 학교는 1,3학년의 경우 정상적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한편, B여고도 18일 현재 전교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2학년 82명과 동아리반 및 기숙사, 교직원 등 140여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판정 받았다. 또 1,3학년은 정상수업, 2학년의 경우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B여고 관계자는 "다행히 2학년과 교직원 등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일단 한숨은 돌렸다"면서 "학생들의 활동이 왕성한 만큼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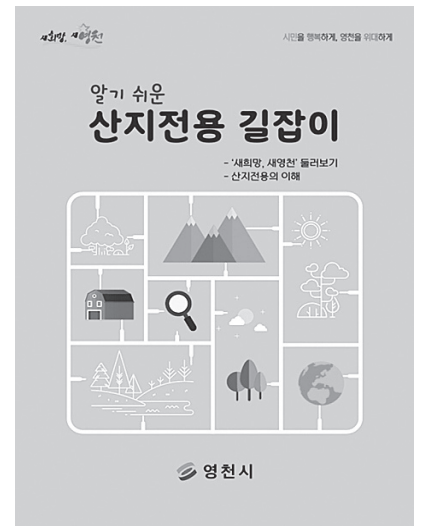
'알기 쉬운 산지전용 길잡이' 제작 배부

영천시, 인·허가 절차 사례, 관련 법령 수록

영천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산지전용 길잡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한다.

영천시는 최근 "공장, 주택 건축 등을 위한 산지전용 인·허가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란 수요에 대비해 합리적 산지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작됐다.

안내서에는 인·허가 절차, 사례, 관련 법령 등을 수록했으며, 영천의 주요 관광명소인 '보현산자연휴양림'과 '영천9경(경)'을 소개하고 영천의 전입시책 자료와 영천시 흥



보가 포함돼있다. 책자는 영천시청 실·과·소, 읍·면·동, 산림조합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 제13대 임원

회 장	김종호	부회장	손기운	이사	유운식	금호읍위원장	김범수	고경면위원장	박규환
명예회장	정광원	부회장	이정우	이사	김정희	청통면위원장	김종철	북안면위원장	김근숙
고 문	박주학	부회장	구본례	이사	김승희	신녕면위원장	한대환	대창면위원장	박태현
수석부회장	박대규	부회장	장태규	이사	김경태	화산면위원장	이찬봉	동부동위원장	이정홍
여성회장	김소은	부회장	이수진	이사	배수예	화북면위원장	문원목	중앙동위원장	조병환
산악회장	안효인	부회장	김성출	이사	이세호	화남면위원장	권재법	서부동위원장	정은심
청년회장	김하봉	부회장	박상범	이사	김재현	자양면위원장	이순자	완산동위원장	신정호
		부회장	손영애	이사	이지용	임고면위원장	정춘식	남부동위원장	서삭규
		부회장	이재형	이사	채송길				
		부회장	김문녀	이사	임세연				
		감 사	송원호	이사	박윤경				
		감 사	김윤자	이사	김인준				

코로나19 힘을 모아 함께 이겨냅시다.

영천교육지원청, 경북 최초 '안전한 학교운동장' 관리방안 마련

지역 초·중학교(32교) 대상
5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활동 위축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운동장 이용률이 줄어들어 들어 운동장에 잡풀이 우거지거나 우수 등으로 바닥 요철이 발생하면서 점차 운동장 황폐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영천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은 아이들 건강과 운동장 활동성 확대를 위해 '안전

한 학교운동장' 만들기 관리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임고면 평천초를 방문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만들기' 일환 운동장 관리기(그라운드클리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그동안 운동장 사용을 저하로 방치된 잡풀제거 및 바닥 정비 등 운동장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으로 지역 초·중학교(32교)를 대상으로 본 사업은 5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

정이다.

특히 교육청은 인력 부족으로 관리직이 미배치된 12개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특정 관리업체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어 학교당 2회씩 운동장 클리닝 작업(잡초제거 및 평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직이 배치된 20교에 대해서는 운동장관리기(그라운드 클리어)를 대여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추가 신청(협의)를 거쳐 예산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며 추후 예산증액을



통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부처님오신날 관불의식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열린 19일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극락보전 전정에서 한 불자 어린이가 관불의식을 행하고 있다. <관불의식>=갓 태어난 부처님의 몸을 씻겨 드려며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

지역 독거노인과 '함께하고 싶은 날' 운영

영천시장애인복지관,
장애 독거어르신 3명
지인 등 10명, 생일잔치상 차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흥열)은 18일 복지관 식당에서 장애인 독거 어르신 생일을 맞아 '함께하고 싶은 날'을 운영했다.

'함께 하고 싶은 날'은 생일을 맞은 독거 장애인으로 형제 또는 자녀의 왕래가 없는 대상자를 복지관으로 모셔 축하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 행복한 삶을 위한 분기마련 '함께하고 싶은 날' 생일잔치다.

이날 장애인복지관은 3명의 어르신과 지인 10명을 초대하고 준비한 선물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생일을 맞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인해 형제들의 발길도 뜸한 요즘 복지관에서 즐거운 생신날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박흥열 관장은 "코로나19로 가족 간의 왕래가 어려운 시기에 복지관에서 준비한 생일 잔치로 큰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고 전했다.

영천시 불세출 태권도 강보라·강미르 전국대회서 나란히 1위

제5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영천 명성 높여

영천시청 태권도단은 지난 10일부터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제51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남자 일반부 준우승, 여자 일반부 3위를 차지해 영천 태권도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불세출 태권도 강자 강보라 선수는 여자 -46kg에서, 강미르 선수는 -46kg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김지우 선수는 +73kg에서 3위로 경기를 마쳤고, 남자 -54kg에서 최진

형 선수가 1위, 남자 -63kg에서 조성호 선수가 1위로 준우승과 3위를 마크했다. 특히 강보라 선수는 지난



실업연맹회장기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돼 차세대 기대주로 떠올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특별점검

영천시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영)은 17~18일 양일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일명: 리얼돌체협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교육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한 이번 점검은 영천교육지원청, 영천시, 영천경찰서 3개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이다.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점검반장 박명호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주 탐나라공화국에 '영천별빛한우' 홍보매장 개설

지역 한우 우수성 홍보
농가 소득증대 기대

영천시는 지난 14일 제주 탐나라공화국(대표 강우현)에서 영천축협(조합장 김진수)이 '영천별빛한우' 홍보매장을 개설해 이날 제막식과 시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매장에는 영천 생산 우수 농축산물 20개 품목을 전시하고, 영천별빛존장터 쇼핑물과 QR코드를 통한 전국 유통망 구축, 영천별빛한우

시식행사 등으로 영천별빛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김진수 영천축협조합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은 "제주 탐나라공화국 '영



천별빛한우' 홍보매장 개장으로 영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 홍보로 지역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항, 단순 교통인프라가 아닌 지역 신산업기업 성장 플랫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 공항경제권 조성 추진전략 마련

경상북도는 18일 군위군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경제권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항·도시계획 및 항공산업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관련업계 등 산학연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첫 발제에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명진 경제권기획팀장은 인천공항의 경제권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명진 팀장은 "최근 공항은 단순 교통거점에서 운송 네트워크와 연관 산업 융합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공항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주변 산업단지 및 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산업, 물류, 관광 등에 대한 분야별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교통연구

원 오성열 박사는 "대구경북 신공항은 내륙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각종 산업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한 배후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며, "공항을 성장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공항도시와 주변지역으로 개발권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동수 선

문대 교수, 김원규 한국항공대 교수, 천용우 ㈜스펙코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공항 경제권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공항경제권의 방향성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공항을 지역 경제의 신성장 거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수 기자

우리는 숲에서 코로나19 면역력 키워요

경북도, 어린이집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무료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무료)'을 '정기형'과 '수시 체험형'으로 운영한다.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은 유아가 숲

에서 보고 듣는 오감체험을 통해 창의성, 감성, 사회성 등을 키워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다.

'정기형' 프로그램은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 어린이집 8개 기관이 매주 참여하고 있으며, '수시 체험형' 프로그램은 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

를 통해 3일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속에서 단계별 집합 가능 인원에 따라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다.

아이들은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아 바람을 느끼고 꽃과 나뭇잎, 울창이를 관찰하며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 4월까지 어린이집 및 가족단위 방문객 약 1,100여명이 참여하였고, 유아뿐 아니라 부모참여 프로그램 '엄마·아빠와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숲에서 나를 만나다'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숲에서 놀고 치유받아요!' 등 계절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할 계획이다.



청도군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 총회 개최

청도군체육회가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으로 설립된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4일 차용대 청도군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 및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8일까지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청도군체육회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체육인(전문, 생활, 장애인) 육성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체육 스포츠 지원 등 체육회 활동

범위가 다양화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에 있어 그동안 준비에 고생하신 차용대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이종복 체육회장과 준비위원, 관계관계 감사드리며, 이번 법인 설립으로 청도군 체육회가 더욱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희망찬 행복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동참하자"고 말했다.



"화랑정신 온누리에"



청도군 금천면... 높이 8M 조형물

청도군(군수 이승율) 금천면은 갈지리 지방도69호선 경산경계 부근에 청도군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조형물은 높이 8m, 폭 2.8m로 고흥석 및 황등석을 기초로 하여 화랑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밤에도 조명을

밝힌다.

군은 화랑 세속오게 정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잊혀진 화랑 혼을 현대로 전승하려는 군의 이념을 널리 알리고, 경북에 국한된 "청도"가 아닌 세계 속의 "청도"로 발돋움하려는 작은 시발점이 된다.

최기문 시장, 민원 소통의 날 추진...다양한 계층 주민과 대화

5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다양한 계층 주민들과 만난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코로나19' 에로사항 해결을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만나 직접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의사소통하면! 만사형통한다!'는 주제로 생활 속 불편사항 및 영천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위한 이번 간담회는 5월 18일 임고면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2회 읍·면·동을 찾아가간다.

특히 농·축산업인,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기업인, 학부모, 임산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만나 각분야 별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와 시정방향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영천 발전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최기문 영천시장은 "논의된 사항은 면밀히 살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예정 간담회 일정 ▲5.18일 임고면, ▲5.21일 동부동, ▲5.26일 신녕면, ▲5.27일 중앙동, ▲6.2일 완산동, ▲6.4일 대창면 ▲6.9일 자양면 ▲6.11일 북안면, ▲6.16일 화산면 ▲6.18일 서부동, ▲6.23일 화남면, ▲6.25일 화북면, ▲6.30일 고경면, ▲7.2일 청통면, ▲7.7일 금호읍, ▲7.9일 남부동 순이다. 장지수 기자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신고 도움창구 운영

영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나,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 054-330-6397)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 054-339-8627)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304,631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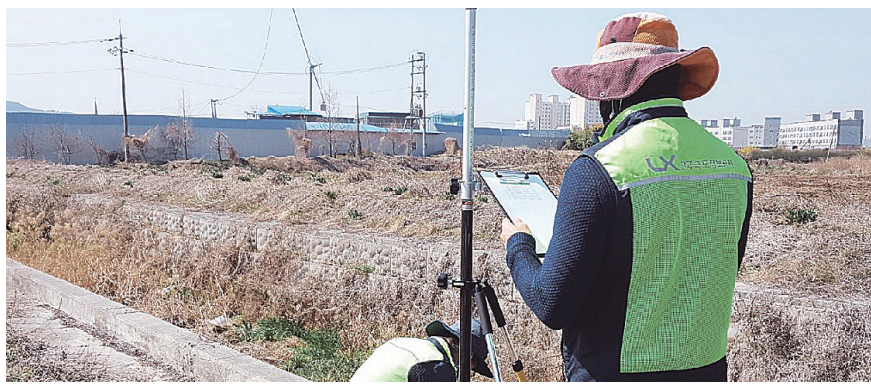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공간정보 좌표체계 일원화 스마트 지적 기반 구축

영천시는 지난 10일 스마트 지적 구축을 위해 지적도와 임야도 등 304,631필지 지적공부에 적용된 지역 좌표를 국제표준 세계측

지계 좌표로 변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1910년 일본 동경측지계로 작성되어 국제표준 세계측지계와 편차가 있다. 따라서 시는 타 공간 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지구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한 세계 공통으로 이용 가능한 '세계측지계'로 변환했다.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공간정보 좌표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스마트 지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통합시스템 전 지역 '주·정차 단속' 알림

영천시는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타 지자체로 확대하는 통합서비스를 지난 17일 개시했다.

중전 단속 알림 서비스는 단속 CCTV 지역 내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됐으나 이를 개선해 단 한 번의 가입으로 1일 3회까지 통합시스템 전 지역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과태료뿐 아

니라 교통 범칙금,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의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 명의의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또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1599-6270)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천시-경북신용보증재단, 상생 협력

지역 소상공인에 체계적 보증 지원



최기문 영천시장과 김세환 경북신보재단 이사장<사진=영천시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2일 경북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서로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제8대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세환 이사장은 이날 최기문 시장을 만나 이같이 협의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 체계적 보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신보재단은 지난해 지역 2천 656개 기업과 소상공인에 656억원의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했고, 영천시는 올해 11억7천700만원을 경북신보재단에 출연해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립도서관, 북스타트 부모교육

선착순 40명 모집

영천시립도서관은 오는 6월, 예비 부모 및 영유아~초등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2021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 일환이다.

이번 교육은 그림책 육아가 낯선 예비부모 및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6월 2일~23일, 매주 수요일 4회 실시된다.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해 평생 독서습관을 응

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 9시부터 영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yclib.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인원은 40명,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또 도서관은 '2021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과 함께 '2021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지원사업'이 동시에 선정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도서관 홈페이지(www.yclib.co.kr)를 통해 북스타트 꾸러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국립영천호국원, 전국 사진공모 선정 작품 전시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용수)은 5월 가정의 달과 6월 호국보훈의 달



을 앞두고 호국원에서 선정한 전국 사진공모 입상작 37점을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방문 참여객과 내방객을 위해 국립영천호국원이 공모한 제1회 ~ 3회까지의 선정작으로 지난 7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전시된다.

특히 호국원은 오프라인 전시는 호국원내 총령당 제2관 1층 로비에 입상작 37점을 전시하고, 온라인 전시는 입상작 영상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영천호국원 SNS에 게시해 방문이 어려운 분들까지 배려했다고 밝혔다.

박순교 칼럼



박순교 교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객원 연구원

영천의 역사 인물 탐색(上)
정세아(1535~1612)①

영천은 일편단충一片丹忠의 절의와 불세출의 기예로 이름 있던 곳이었다. 고려조와의 의리를 지키다 죽은 정몽주가 그러했고, 화포를 처음 만든 최무선이 그러했다. 영천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후백제의 건국이 두 달여 군영을 꾸린 곳이며, 임진년에 난리가 터지매 사방의 무리가 모여 창칼을 들고 왜적과 싸운 불굴의 기상이 서린 곳이기도 했다. 지금 작은 땅 덩어리에서 그저 한 치 작은 이익을 다투며 골몰하는 우리에게, 거미줄처럼 얽힌 역사의 낱알들이 범접하기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나간 기록의 갈피를 한량없이 더듬으며 역사의 추적자가 되어, 가없는 울림을 던진 한 인간의 오롯한 면모를 탐색하여 동시대인을 격동시키려는 이유가 이에 있다. <필자 주>

사통팔달의 추요지

영천은 동쪽으로 경주부 안강현 경계까지 42리요, 남쪽으로는 같은 부부 자인현慈仁縣 경계까지 33리요, 서쪽으로는 하양현河陽縣 경계까지 23리요, 북쪽으로는 임내任內 신녕현新寧縣 경계까지 25리요, 서울과의 거리는 6백 87리였다. 고려 초년에 도동道同·임천臨川 두 고을을 합쳤으니, 두 물줄기를 합쳤다 하여 영주永州라고 했고, 달리 고을부高鬱府라고도 했다. 조선조 태종太宗 13년, 이름을 고쳐 현재의 영천군으로 하였다.

영천은 포항, 대구, 안동이 모두 80리길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었다. 그 화살대가 한 곳에 모이는 중핵에 영천이 자리했다. 이른바 경상좌도의 추요지樞要地였다. 까닭에 남쪽 적의 발길이 여러 번에 걸렸었다. 최무선과 임진년의 무리가 공히 왜적을 겨냥했던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임진년의 거의擧義

1592년 임진년의 전쟁. 당시 정세아의 나이는 스물셋이었다. 군자는 숨어 살기도 세상을 저버리지 않듯, 정세아는 거의擧義의 선봉에 섰다. 그에 대한 세평은 이러했다.

鳥獸와 山林은 공을 일러 멀리 숨었다 할 것이고
兵馬와 兵器는 공을 일러 잘 싸웠다 하리라.
자벌레처럼 굽히기도 하고 매와 같이 날기도 했으니,
그의 시대가 그렇게 하게 했다.
공이 대관절 무엇을 구했겠는가. 그 오롯이義를 행했다.
구름처럼 산 위에서 나와 삼농三農을 운택하게 하고
뿔다가 거두어서 태공[太空, 까맣게 높은 먼 하늘]으로 돌아갔다.
(趙顯命, 神道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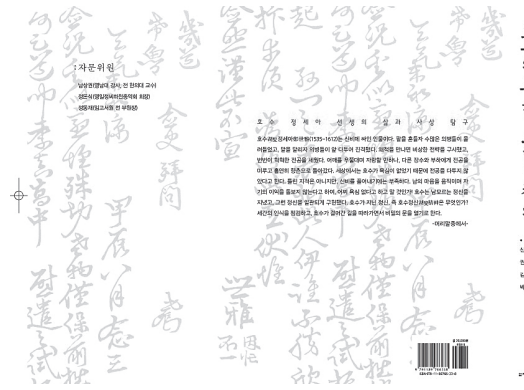
정세아가 창과 칼을 들어 거의했건만, 조수鳥獸와 산림山林조차 행적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오직 전장의 창과 칼, 병마만이 정세아의 활약을 짐작했다. 시대의 불행하고 처참한

자화상을 드러낸 대목이자 정직한 위정자의 자기도로였다. 정세아의 진정한 활약이, 조선의 언론을 움직이고 조선의 벼슬을 쥐고 흔들며 세간의 여론을 움직이던 이들이 아닌, 유혈 낭자한 전장을 누비던 창과 칼, 병마만이 징험했다. 이것은 정세아가 공을 다투어 양지에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라 숨어서 활약한 은미한 주인공임을 알게 한다.

그 자신, 저열한 난신적자의 틈 속에서 공과 벼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의를 구하였고 백성의 삶을 구하였으며, 가진 모든 것을 풀어 해쳐 하늘 아래 모든 것을 운택하게 한 다음, 다시 태허太虛로 허허롭게 돌아갔으니, 그의 가락한 천명이야말로 정세아가 걸어간 길이 여느 의병장 혹은 관리들과 출발과 끝이 확연히 달랐음을 징험하는 것이었다. 정세아의 삶은 어둠 속에 피어나 조선의 생명을 건지고 삶의 온기를 전했으니, 중국에는 모든 시운時運의 틈에서 공명의 끈을 내려놓고 고요히 사라졌다. 필자가 역사의 행간에서 지워진 그의 삶을 하나하나 부조해 내려는 까닭이 이에 있다.

정세아의 출생과 성장

1535년(중종 30년) 영천永川의 자양紫陽 노향촌魯巷村. 한 사내가 출산의 소식을 기다리며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영천의 동북東北에 있어 향간에서는 일대를 뭉뚱그려 자



쫓빛 태양이 머무는 곳[자양紫陽]이라 일컬었다. 한잠의 시간이 혼곤하게 흘렀을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윤량은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아世雅라는 이름을 지었다. 아찔한 큰부리까마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르고 우아함을 의미하기도 한 터라, 아이의 바르고 우아한 삶을 희구함과 더불어, 오천鳥川, 까마귀[오鳥] 내[천川]를 발상지로 내세우는 집안의 유래와도 일맥상통했다.

정윤량의 집안은 문필을 중시했다. 집안의 세대와 세대에 걸쳐 붓과 붓에 오롯한 지조와 신념이 괴여 전해졌다. 정윤량은 아들 정세아의 자자를 화숙和叔이라 명명했다. 화숙은 아득한 옛날 요철 임금의 명신名臣이었다. 중국의 요 임금이 거느린 어진 네 신하 중의 한 사람이 화숙이었다. 정윤량이 새삼 정세아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대략 이와 같았다.

부친 정윤량은 퇴계의 직전제자였다. 부친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가학家學을 이었으니, 정세아는 퇴계학맥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셈이었다. 정세아는 스물셋의 나이인 1557년(명종 12년) 비안比安 현감縣監 일직一直 손치운孫致雲의 딸과 혼인했다. 이듬해 스물넷의 나이로 1558년 진사시 3등 37위로 입격했다. 젊은 그가 쓴 진사시 회시 답안에서는 민초의 거친 삶과 애환을 피를 토하는 심정의 직간으로 절절이 풀어내고 있다. 서러운 살이 되던 1565년(명종 9년), 보우의 처단을 상소하며 일시 상경하기도 했다.

나눔과 베품

정세아의 이후 행적은 미궁에 쌓여 있다. 다만 그간의 세월을 정세아가 어찌 보냈을지를 함축적으로 보이는 기록이 없지 않다.

공이 고을에 계실 때는 경박한 자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게으른 자는 그 잘못을 깨닫는 마음을 낼 줄 알았다. 선을 행하는 자는 믿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고치지 아니하고, 악을 짓는 자는 꺼리는 바가 있어서 감히 방자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 무거운 바를 알 수가 있겠다. (장현광이 쓴 제문祭文)

남의 궁핍한 것을 보고 베풀어주기를 미치지 못할까 염려했다. 이러한 그의 효제孝梯와 적선積善이 뒷날 임진왜란을 당하여 거의擧義하매, 수백 명이 호응한 뒷배경이 되었다. 요즘 가장 핫(Hot)한 '선한 영향력'의 뚜렷한 사례임을 징험하는 셈이다.

변란의 조짐

이즈음 세상의 일들은 더욱 엄혹해졌다. 재변과 변란의 조짐이 횡행했다. 선어선이 되



던 1590년, 정세아는 친한 벗들과 일대를 잠행했다. 남으로 걸음을 재촉하여 불국사 영지루影池樓와,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 김유신의 전설을 담은 주사산朱砂山과, 신라의 총신 박제상과 치술의 비련이 깃든 곳, 치술령에 오르기도 했다. 슬픔을 머금고 무력함을 담아 시세를 탄식하는 일행에게, 냉철하게 사세의 근분을 설화하기도 했다.

이즈음 조선 조정은 일본 통일을 축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통신사 일행은 토요토미와 대면했다.

한낱임에도 사방은 깊고 어둡고 고요했다. 밀축을 켜놓지 않으면 외부의 침입자가 방안을 금세 파악할 수 없도록 자욱한 음영이 드리웠다. 간혹 등잔의 별불이 조용히 출렁였다. 그럴 때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조용히 고개를 들자, 주변이 밝아지고 어두워질 때마다 토요토미의 용모는 조금씩 달라 보였다.

쉼다섯 살의 토요토미는 검은 얼굴이었다. 3층 높이의 큰 병풍을 뒤로 한 채, 검은 사모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채 삼중으로 된 보료 위에 남쪽을 향해 앉은 채로 조선의 사신을 맞았다. 세 겹 보료의 높이가 한 자를 넘었다. 용모는 원숭이같이 생겼으며 수염이 거의 없고 언뜻 키도 작아 볼품이 없었다.

다시 보니 대체로 매섭고 야위고 굳세며, 풍만함이 부족했다. 머리를 틀어 뭉쳤으며, 한쪽 다리를 길게 뻗고 앉았으나, 큰 흐트러짐이 없었다. 앉은 모양이 빼어났다. 볼수록 눈빛이 매우 예리하여 사람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의 왼편에는 철포鐵砲와 도끼가 있었다. 오른편에는 활과 화살을 두었다. 머리 위에는 창 따위가 걸려 있었다. 서쪽에는 그의 측근 셋, 공가公家 다섯. 총 여덟이 열을 이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채 꿇어앉아 있

었다. 흑색 통소매와, 그 위에 걸쳐진 그들의 붉은 겂옷에는 은으로 만든 표가 각기 달려 있어 높고 낮음을 드러냈다.

넓은 방 중앙에는 사각형 모양의 탁자 하나만 행하니 놓여 있었다. 조금 뒤 동쪽에 앉은 각각의 조선 사신 앞에도 작은 호족반의 상 하나씩 놓였다. 차려진 음식이라고 해 봐야, 각각 딱 한 접시와 탁주 한 동이씩이었다.

너희들 모두 술을 들어라

토요토미가 잠시 조선 사행의 면면을 훑었다. 그러더니 남면南面한 자세로 짧게 말했다. 조선의 사신들은 질그릇 사발에 담긴 술 한 잔씩을 맡없이 들이켰다.

주도酒道는 지극히 간략하였다. 술이 세 순배 돌아 접견의 의식은 끝이 났다. 절이나 읍을 하거나 술을 권하고 받는 예법을 일절 행하지 않았다. 황윤길이가 조선 사절을 대표하여 토요토미에게 조선왕의 옥새가 찍힌 국서와, 몇 필의 비단과 인삼, 호피, 모시, 삼베, 붓, 먹, 은장도, 청심원 등을 헌정했다. 앞드려 있던 사신 侍臣 두명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토요토미의 탐전에 전했다. 그리고는 짧은 몇 번의 문답이 더 오갔다. 융숭하고 장중한 특대特待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토요토미는 일어나 방 뒤쪽에서 자신의 갓난아이를 안고 나왔다. 갓잡에서 갓 갓난아이를 안고 어르며 토요토미는 방이랑 마루를 천천히 돌아 다녔다. 그의 맨발이 유독 눈에 띄었다. 잠시 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정에 기대앉은 그는 조선 악사들의 음악을 청하여 들었다. 가야금, 비파, 옥피리, 장구, 피리. 다섯 악기가 울려律呂와 궁상 宮商을 맞추었다. 어린 아이가 갑자기 칭얼댔다. 토요토미는 아이가 오줌을 싸다고 말하면서, 음악을 멈추게 했다. 병약해 보이는 아이였다. 토요토미는 얇게 웃으며 시종을 불렀다. 스셋의 나이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 아비의 정이 곡진하게 비쳤다. 그의 낮고 허허로운 웃음이 일순 허공을 울렸다. 웃음은 비수처럼 사방을 채웠다. 어둠 속에서 대기 중이던 몇몇 여인 중 하나가 나직한 대답과 함께 머리를 수그리고 종종걸음으로 달려 나왔다. 치맛단이 바닥에 끌리며 소리가 사각사각났다. 이내 그녀는 머리를 수그린 채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웃을 갈아 입혔다. 일본의 사신 侍臣들은 다들 침묵하며 무릎을 꿇고 앞드린 채 숨죽이고만 있었다. 그 행위의 처음과 끝에 조선의 사신들은 인중에 없었다. 토요토미는 다시 조선 사행을 쳐다보지 않았다.

불행의 근원

1591년 음력 1월 28일, 경인년에 일본으로 나아가간 통신사 일행 200여 명이 부산에 도착했다. 떠난 지 대략 11개월 만이었다. 대마도 도주 종의지宗義智가 귀로에 다시 동행했다. 황윤길은 즉시 파발을 띄워 일본의 침입이 임박한 사실을 조정에 알렸다. 사행은 한양을 향해 각자 다른 3로路로 나아왔다. 부산에 도착한 지 32일이 지난 1591년 음력 3월 1일. 선조가 친림한 인정전의 조당에서 사행을 둘러싼 북명이 있었다. 황윤길, 김성일, 허성 세 사람의 말은 조금씩 다 달랐다. 통신사의 명을 받아 다시 북명復命하기까지 1년이 걸렸고, 일본에서만 9개월을 소요한 사행이었건만, 토요토미의 초상에서 일본의 침입까지 시종일관 엇갈린 정보에 선조도, 조선 조정도 혼란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서글픈 현실이 봄바람을 타고 조선 조정의 곁에 꾸역꾸역 밀려들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바 없는 어수선한 형국이였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 도도한 일본의 굳센 욕망이, 2백여 명을 동원한 1년의 세월로도 통찰되지 못했다. 통한의 시간이 담긴 일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김문길 칼럼



김문길 교수
학술박사 문학박사
부산외대 명예교수
현) 한일문화연구소장

일본 속에서 조선 역사를 찾는다①

이번호부터 수 십년간 일본을 오가며 일본속에서 조선 역사를 연구한 본지 칼럼 김문길 교수(부산외대)가 열정적으로 파헤친 조선여인의 인물인 조선 사회에 여도공들의 활약상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임진왜란 조선 여도공의 활약

김해에서 끌려간 여도공 백파선(百婆仙)①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여성 도공이 있었다

는 것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임진왜란은 흔히 도자기 전쟁 또는 문화전쟁이라 말한다.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전쟁 와중에 조선의 장인(匠人)들을 많이 잡아오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그 때 많은 조선 도공들이 잡혀갔다. 남자 도공뿐만 아니라 여성 도공도 잡혀갔다. 조선 도공들 중 사쓰마(薩摩), 심당길(沈當吉), 아리다(在田, 이삼평(李參坪) 등이다. 사료(도공을 잡아왔다는 증명서)에 따르면 심당길과 이삼평의 스승이 바로 여(女)도공 백파선(百婆仙)으로 확인됐다.

도요토미(豊臣秀吉)는 전쟁 중 조선의 도자기기가 탐이 나 가급적 많이 약탈해오도록 명령했다. 도공을 납치하는데도 혈안이 되었다. 필자가 일본속 조선 역사를 연구하면서 당시 왜장이 후손 집에 묵은적이 있다. 어늘날 후손이 나에게 건네 준것이 일본 각처에 전달한 조선에서 약탈해 온 물품(문화재급)목록과 납치해온 도공들의 명단이었다. 이 문서는 두루마리로 길이 1m 폭이 40cm나 됐다.

해당 문서에는 조선에서 30여명씩 도공을 데리고 와 교토(京都) 후우오카(福岡)아마구치(山口)에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여(女)도공 백파선도 포함됐다. 백파선은 남편 김종전

과 함께 끌려갔다.

당시 김해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던 백파선은 왜장 고토 이에노부(後藤家信)에게 부부가 같이 끌려갔다. 고토는 임진때 제2진으로 들어온 나베시마 나오시케(鍋島直茂)의 가신이다. 나베시마는 동래성, 청주성, 수도한양을 거쳐 평양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정유재란(1597년) 때 남원성에서 조선 의병과 명나라에 패한 후 후퇴하여 지금 김해시 가락면 죽림동에 머물게 된다. 이곳에 당시 나베시마가 지은 왜성도 있다.

죽림동은 김해 오봉산 동쪽과 남쪽에 골쳐진 가락면의 중심지다. 죽도(竹島)라 했다. 고대부터 외국상선이 정박하기도 해 죽림항이라 불렀고, 김해의 요새다. 왜장 나베시마는 1593년 7월 진주성을 함락하고 이곳에 왜군들이 주둔하기 위한 성을 쌓았다. 죽림리 왜성을 쌓을 때 똑같은 성을 부산 구포에도 쌓고 이를 '감동포성'이라 했다. 왜장들은 이 두 곳에서 7년 동안 많은 조선인과 재물을 노략질했다. 이 두 성의 규모는 약 1만여 평 규모다.

성 아래는 바다와 맞닿아 왜선들이 정박했다. 당시 성을 구축할 때 김해지방 농민을 강제 사역시키고 석축 공들은 일본으로 끌고가

성 쌓는 일에 동원하기도 했다. 지금의 일본 교토 후시미 성은 이때 축조했으며, 붙잡혀온 조선의 석축 공들이 지은 것이다. 당시 김해 죽림성은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로 벽을 쌓아 사방 1km 규모로 웅장했다. 지금은 허물어져 그 일부만 남아 희미한 성터와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있다.

김해지방에는 현재도 세 곳의 도자기 가마터가 남아있다. 김해군 좌부면 동산동 동광초등학교 동쪽 언덕에 있는 가마터는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주위에는 지금도 도자기 파편들이 널부러져 있다. 또 김해 상동면 대갈리 가마터는 조선 초기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백토(白土, 백자) 가마터다. 숯, 향로 그릇 등이 주위에서 출토되고 있다. 여기에 김해군 대동면 주동리에서도 역시 조선시대 백자를 구운 도자기 가마터가 있다. 당시 백파선은 일본에서 주로 백토로 생활필수품을 만들었다. 또 그녀가 김해군 상동면 대갈리의 가마터에서 도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돼 본 필자는 그녀가 상동면 대갈리 사람이었을 것으로만 분석한다.

<다음호에 김해에서 끌려간 여도공 백파선(百婆仙)② '일본은 조선인 거주지 당인정(唐人町)에 가마를 뒀었다'가 계속 됩니다.>

특별기고



김유미
소설가

소설가 김유미 작가가

바라보는 '소설같은 대한민국' (43)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공산국가를 신봉한다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내통하거나 찬양고무 또는 허가없이 윽박하면 적용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은 무용지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국가정보원 역시 박지원이라는 걸출한 좌익이 장악해 전혀 제구실을 못한다. 어쩌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존립에 해악을 끼치는 조직으로 변모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51%가 공산국가를 원하면 공산국가로 갈 수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결정하면 된다. 공산국가로 가는 개헌도 국민이 동의를 하면 될 것이고, 대통령후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공산국가로 간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꿈을 못깨

고 있다.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공산국가로 가는데도 몰라서 무지해서 찍는다는 것이다. 과연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그 수치가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과 왜 다를까? 이는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하지 못한 결과다. 언론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언론이 공산혁명의 흥위병을 자청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이다.

자유국가를 원하면 국민의힘을 찍으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공산국가를 원하면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은 그들에게 공산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뽑진 않았다. 헌법을 수호하려고 뽑았더니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체제를 송두리째 없애고, 공산국가로 체제를 바꾸려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차기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100% 공산국가가 된다. 그들에게는 고려연방제가 가시화되었다. 이미 북한에서도 "고려민주주의연방공화국"이라

를 원하는 국민이 51%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개헌과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답은 뻔하다. 4.15부정선거의 경험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야당이 스스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한 이상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검찰과 사법부가 4.15부정선거와 같이 그냥 깔아뭉개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4.15부정선거의 학습효과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10개월 남짓 남았다. 지금이라도 3.9부정선거를 막는 길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3.9부정선거를 막을 당론을 확정하고 "전자투개표반대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대선지지도에서 앞선다고 해도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개표를 하면 버터내지 못한다. 이것은 4.15부정선거의 경험에서 이미 아는 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내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증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한 가수 나훈아씨가 생각한다. 그렇다. 국민이 힘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힘이 있으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쟁력이 필요하다. 과거 4.19의거로 대통령도 하야시킨 투쟁력을 가진 국민이었다. 이제 그 투쟁력을 다시 재현할 때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체제를 수호하는 길이다.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의 51%가 공산국가를 원하면 공산국가로 갈 수 있다.

선동으로 안되면 선거조작이라도 할 판이다.

국민들은 이것을 막아 낼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정권은 이미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일당들이 장악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련의 정책들은 공산국가로 가기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한 예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각 동 단위 인민위원회를 그대로 빼다 박았다. 공산국가가 된 이후에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다. 차후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도 통제할 것이고, 부동산 처분과 매입도 통제할 것이다. 이런 것이 버젓이 조직되고 법률이 제정되어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는 국호를 준비해둔 상태다. 개헌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남북한이 선언만 하면 곧바로 "고려민주주의연방공화국"이 출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치뤄질 대통령선거를 개헌과 함께 동시에 투표에 부칠 계획을 잡았다. 개헌도 통과시키고 대통령선거도 승리하면 공산혁명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1980년부터 장장 42년에 걸쳐서 지하조직으로 활동했던 혁명의 완성이 코앞인데 못할 것이 없다. 선동으로 안되면 선거조작이라도 할 판이다. 이것이 바로 3.9부정선거의 예고판이다. 공산국가



돋·보·기

감추고 싶은 영천시, 투명행정은 말 뿐

최근들어 영천시가 정보단속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것도 일부 언론과 기자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다. 감출 것이 그리도 많은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혹시 자신이 제공한 정보 때문에 최기문 시장에게 꾸지람을 들을까 봐 몸까지 사리는 모양새이다.

행정은 투명해야 공직자의 비리가 줄어든

다. 또 정보의 공개와 투명행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시민의 행복추구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은 잘못된 시정과 꿈을 부리는 자치단체장에 대해 과감하게 비판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오류를 바로잡아 발전적 시정을 견인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영천시는 이같은 합리적 투명행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감출게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감출수록 행정은 퇴보한다. 또 유언비어가 난립하고 뒤늦게 드러나면 그만큼 아픔은 더 크다.

특히 최기문 시장에 대한 비판이라도 보도되면 공무원들은 난감하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적극 공개해 소통하는 '투명한 시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다. 그만큼 공직자의 청렴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지, 아니면 인사권자 나홀로 청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인사권자인 최기문 시장의 인사스타일에 불만을 나타낸 공무원이 67%나 된다는것은 바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명하지 못한 것이라면 영천시는 그만큼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이된다.

영천시가 감추고 싶은 것이 뭘까? 누구를 위한 행정일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된 A사무원, 여성폭력으로 사법 수사를 받은 사무원, 또 느닷없이 명퇴신청한 공직자. 민원을 두려워해 도의 지침을 핑계로 코

로나 확진자 정보를 감추다 오히려 확진자만 양성하는 꼴의 행정,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식중독 발생 사고를 두고도 기자에게는 차단막을 치는 보전소,

특히 최근 여성기업인 이·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한 영천시 홍보영상 방영은 선거법 위반소지도 많다. 일각의 시민들이 시정은 보살피지 않고 오직 다음 재선만을 위한 최 시장의 행보라는 소리가 유독 최 시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 강조하고 싶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적극 공개해 소통하는 '투명한 시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 덕목이 바로 공직자의 청렴이다.

동 정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보



이만희 의원은 19일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각 사찰을 돌며 지역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며 축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일찍 오수동 죽림사를 방문해 봉축법요식을 거행하고 봉등사와 은혜사, 만불사 등 크고 작은 지역 사찰을 돌며 오후 늦게까지 행보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불자들을 향해 "부처님의 오신날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참뜻으로 지역과 시·군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도로...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탐방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새바람 행복버스 청도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 민생 기 확실히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도군민들과 소통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지사는 "특히 관광·레저산업의 타격이 극심하다"며 "청도군민과 경북도민이 함께 하면 경북 민생의 기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국영천시향우회 접견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17일 전국영천시향우연합회 조삼열 청년회장으로부터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가공식품 1만개(2,400만원 상당)를 기탁받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최 시장은 "항상 고향을 챙기는 청년회장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20일 오후 시장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대일정공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북통상(주)와 업무협약



이승울 청도군수는 지난 13일 북통상(주)(대표 김유태)와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경북통상(주)와의 상호업무협약을 통해 청도군 농·특산물의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최인호 상수도사업소장 12일자 도시계획 과장에 보임

영천시는 지난 11일 최인호 영천시상수도사업소장을 12일자로 영천시 도시계획과 과장에 전보발령했다. 최 과장은 지난해 2월 사무관으로 승진해 7월 도시계획과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영천시는 지난 7일자 토지투기협의로 구속되면서 공석이던 도시계획과 과장 자리를 이날 구속 5일만에 보완했다.

영천경찰서 정보계 겹경사...우수정보관 선정

이희웅(경위) 4월 전국 우수
임재윤(경위) 2월 전국 최우수



이희웅(경위) 임재윤(경위)

영천경찰서 정보계(공공안녕정보)가 올해 들어 겹경사를 맞았다. 부서 내 두 명의 정보관이 전국 정보관 제안 및 정책 대결에서 잇따라 최우수와 우수 정보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13일 이희웅 경위가 경찰청에서 실시한 전국 정보관 대회에서 4월

의 우수 정보관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영천警局은 10일 임재윤 정보관(경위)이 올해 2월의 전국 최우수 정보관에 선정된바 있다.

3일만에 두 정보관이 잇따라 전국 최우수·우수 정보관에 오르면서 올해 들어 영천경찰서가 연달아 전국 정보관 최고 상을 독식한 것이다.

경찰청은 매일 전국 정보관들이 제출한 정책 자료 중 지역 안전 위협요소 발굴, 정부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관 중에 최우수 1명, 우수 정보관 10명을 선발한다.

이날 이희웅 정보관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영천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시민들의 협력이 바탕이 된 덕분"이라며 시상 소감을 오히려 시민에게 돌렸다.

이근우 경찰서장은 "우리 뿔에서 연달아 전국 우수 정보관이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먼저 살피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영천 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노력

영천시가 18일 경상북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돼 상패와 시상금을 받았다.

도는 규제개혁 실효적 추진력 확보를 위해 매년 23개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이같은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

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총 8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앞으로도 규제임증책임제 실시, 전 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개최 등 '기업·공무원·전문가' 3자가 협력해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우애자 시의회 운영위원장...道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위촉

우애자 <사진> 영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출범한 제5기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회 활동을 2년간 하게 되는 우 의원은 이날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또 협의회 의장에는 권태환 안동대 명예교수, 부의장에는 권영수 정부혁신포럼위원이 선

임됐다. 우애자 의원은 제50사단 122연대 초대여성 예비군 소대장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경상북도단장,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 8,9대 회장,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 부위원장과 영천시당 여성 위원장과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영기 시의원 "영천시에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 설립 시급"

5분 발언

영천시 65세 노인인구 3만명 중 11.4% 치매환자 공공요양병원 없어

영천시의회 이영기 의원(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영천시에 치매 전담형 공공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의 설립 시급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천시 치매환자는 2020년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11.38%(3,190명)로 이는 2030년에 15%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며 "치매환자가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같은 병원 설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천은 경북도내 10개 시·군 중 치매환자 100명당 10명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며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과 환자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요양의료기관 설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하고, 이 중 치매환자가 11.4%로 2030년에는 1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60세이상 노인 대상 43%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 의원은 "치매는 치유될 수 없는 점 보다 본인 스스로 삶을 돌보지 못하고 이로 인해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쳐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는만큼 요양병원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연말부터 치매관련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이 의원은 특히 "경북에 있는 총 16개 공공요양병원 중 도립병원이 4곳, 시·군립병원이 12곳이지만 경북도 10개 시·군에 영천에만 유일하게 병원이 없다"면서 집행부(영천시)에 적극적인 요양병원 설립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포함된 이같은 치매연구위원회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공공요양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증여시점 양도소득세 절세법

증여시점 재산가액=양도시점 취득가액
증여물건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증여시점에서 다른 시기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아끼다가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은 증여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는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는 보통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증여재산의 평가를 시기로 하든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든 증여일에 증여재산가액이 향후 양도시점에서 취득가액이 된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혹은 시가로 확인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서 계산하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

증여재산이 1세대1주택비과세가 적용되거나 각종 감

면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굳이 자산가액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신고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사업용토지와 같은 중과 대상의 경우에는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증여시점에서 증여세를 부담 하더라도 추후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액 비교는 전체적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 부동산이나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배우자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에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과세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든,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 하든 자산가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례별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
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
청구시점부터 협의해야

문 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6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이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분묘기지권),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할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

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 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해 지료를 모두 지급하도록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장기간의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94다37912) 등은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다.(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 분묘기지권에 대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지급하면 된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사설

영천시, 감염병 대응 뒷북 수습
역학조사 헛다리...유비무환 절실

영천시 감염병사고 대응 수준이 낙제점이다. 사고 수습은 커녕 오히려 은폐하거나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특히 초기 발생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주먹구구식 편의주의적이다. 때문에 발병 원인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었다. 인력과 에너지가 코로나19에 매몰돼 자칫 일반 바이러스 감염병이 예방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지난 14일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 이 식중독은 대부분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하다.

때문에 소량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기 쉬워 전염성과 확산성이 매우 강하게 특징이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3~4일만에 저절로 회복되기도 한다. 그러나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어린이집은 물론 행정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천시는 감염병 대응이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사고가 난 뒤 요란을 떨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를 철저히 해 사후에 근심이 없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예방적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더군다나 지난 5월 초 경북도가 보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늘고 있다는 주의보까지 발령했는데도 영천시는 4월초 형식적 교육지침 공문 한장 달랑 내려보내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에만 전가한 모양새다.

특히 지난 14일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사고 대응 수준은 낙제점수도 아깝다. 발생 원인 추적은 처음부터 염두에도 없었다. 눈에 보이는 어린이집 보관식과 조리사만 조사했다. 물론 식중독 자체가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게 일반적이어서 그럴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발생했고, 최초 환자가 누구인지,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초기 역학조사는 없었다. 그사이 14명이나 되는 어린이와 가족감염으로 확산돼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영천시가 져야 하지만 공무원들의 자기 질책은 기대할 수 없다. 보건소가 팽개친 초기대응부터 살펴보자. 먼저 10,11(월,화)일에 이미 두 원생(가족)이 설사와 구토증세로 등원하지 못하다가 12일부터 등원하면서 증세가 악화돼 이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원생 어머니도 12일 구토증세로 병원을 내원했다. 이 가족 중 3명은 결국 13일(수) 모두 입원했다.

더군다나 해당 어머니는 12일 오전에 김밥을 구입해 늦은 오후에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조차 기자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왔다. 김밥을 먹고 온 환자는 검사조차도 하지 않았다. 김밥은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조사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는 사이 13일 오전부터 같은 반 원생 1명이 추가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14일부터 확산돼 주말사이 모두 14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건소와 영천시가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쪽 다리를 굽은 결과다.

보건소는 이들 초기 발생 가족에 대한 초동 역학조사는 외면하고, 오히려 어린이집을 숙주로 원내 보존식만을 지목했다. 어린이집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직원 및 수십명의 원생들이 동시에 같은 증세를 나타내야 보건소의 역학 방향이 해명된다.

보건소는 18일야 뒤늦게 누락된 가족 원생(최초 증세어린이)의 검체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후속 조사에 들어가면서 부산을 떨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다. 초기 환자는 완치가 됐고, 김밥도 벌써 소화가 끝났다. 더 황당한 것은 어린이집 보존식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완치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모두 사후약방문이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영천시가 져야 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주)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새바람 행복 경북!

지금 우리를 위한 여행, '경북 요즘 여행'

“이맛에 가는구나” 경북 요즘 여행!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가고 있는 요즘, 집콕만 하지 마시고 경북에서 즐기는 '오늘 여행' 어떠세요? 경상북도가 제안하는 보석같은 여행! 골라가는 재미가 있는 여행! 지금, 우리에게 '경북 요즘 여행'이 필요합니다.

경북의 힐링여행
우리만의 초록빛 시크릿기든으로 '오늘 여행' 떠나요!
추천여행지
철곡 가산수피아, 문경 고모산성, 의성 고운사 천년숲길,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구미 금오산올레길, 포항 내안산 12폭포, 문경새재 영덕 별장리 베타세쿼이아숲, 상주 성주봉자연휴양림, 영주 소백산 죽령옛길, 청도 운문사와 숲바람길, 봉화 청량산, 경산 팔공산 깎아위, 상주 생귀숲 등

경북의 청정여행
추억 민첩하는 산비대 낭만코스 '오늘 여행' 떠나요!
추천여행지
울진 등기산스카이워크와 등대공원, 청송 국립공원 주왕산 영취봉루터, 경주 주상절리피노소리길, 울릉군 태하항목전망대, 관광모노레일, 울릉군 행남해안산책로, 포항 호미반도해안돌레길, 군위 화산산성전망대 등

경북의 체험여행
엔돌핀 팡팡 터지는 신나는 체험코스 '오늘 여행' 떠나요!
추천여행지
김천 레인보우원아이어, 구미 에코랜드, 문경 철로자전거, 문경 잘리인 청도 레일바이크, 영천 보현산길, 원외이, 상주 국제송마장, 포항운하, 철곡 양배도, 경산 꼬니힐링송마농원,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청도 한국코디터온 등

경북의 배움여행
즐긴 만큼 배우고 성장하는 경북으로 '오늘 여행' 떠나요!
추천여행지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고령 대가리고분, 군인동 도산서원과 화계대단길, 영주 무성마을, 문경에코힐리, 영주 부석사, 경주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예천군출생터, 의성 조문국사적지, 김천 서명대사공원, 철곡호국평화기념관, 인동 하회마을, 군위 한방마을 등

2021년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중등부-겨루기, 품새)

2021년 5월 30일(일)~6월 3일(목) 9일간

[겨루기] 2021년 5월 30일(일) ~ 6월 3일(목) / 5일간

[품새] 2021년 5월 26일(수) ~6월 3일(토) / 4일간

※단, 참가인원의 따라 대회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 ▶장 소 : 영천실내체육관 / 경북 영천
- ▶주 최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 ▶주 관 : 대한태권도협회, 경북태권도협회
- ▶후 원 : 영천시, 영천시의회, 영천시체육회, 영천시태권도협회
- ▶협 찬 : 아디다스

♥ 가정의 달~ 마음을 전합니다 ♥

영천농협하나로마트

고객 사은행사

구매금액별 물티슈, 각티슈, 세탁세제세트 사은품증정

행사기간 2021.5.11~5.31 많이 많이 오세요~

행사사업장 남부지점, 화남지점, 화북지점 동시진행~